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 간의 관계: 베이비부머,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 남성 세대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황 민 영 정 순 들[†] 김 주 현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ageism)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노화 인식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직렬 다중매개효과를 남성 베이비부머, 전기노인, 후기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남성에 해당하는 총 69명의 자료와 전기노인 총 151명, 후기노인 총 63명에 해당하는 자료를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연령주의척도, 단축형 CES-D, 신체적 노화 인식 척도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과 우울감 변인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둘째, 세대집단과 연령주의, 연령주의와 신체적 노화 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셋째,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신체적노화인식→심리사회적노화인식→우울감'의 경로와 '신체적노화인식→우울감'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신체적 노화 인식과 우울감 사이의 관계를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 세대에서는 '연령주의→심리사회적노화인식→우울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신체적 노화 인식 변인은 상이한 패턴을 보이며 그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남성 베이비부머, 전기노인, 후기노인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공포관리이론을 기반으로 죽음이 점차 가까워지는 시기에 경험하는 실존적 위협의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역사적 세대 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공포관리이론(TMT), 연령주의, 노화 인식, 우울감, 사회역사적 세대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582).

† 교신저자: 정순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dchung@ewha.ac.kr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가 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곧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컫는 Ageism이라는 용어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national institute of aging)의 초대 소장이었던 Robert N. Butl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Butler, 1969). Butler(1987, 1995)는 Ageism이 인종차별주의(racism)와 성차별주의(sexism)에 이어 사회에 존재하는 세 번째 중요한 차별주의(ism)라고 주장하였다.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같이, Ageism은 노인, 즉 나이드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차별적 태도를 의미한다(최성재, 2009). 하지만,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달리, Ageism은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Palmore, 2001).

Butler(1980)에 따르면, Ageism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노인 스스로의 태도를 포함하여, 전 연령대 사람들의 나이드는 사람, 나이들, 노화에 대한 편견적 태도이다. 두 번째는 특히 고용 현장을 포함하는 사회적 역할에서 노인에게 행해지는 차별이다. 세 번째 측면은 악의 없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영속시키고, 노인이 만족스런 삶을 누릴 기회를 감소시키며, 그들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제

도와 정책이다. 태도와 믿음, 차별적 행동, 제도적 규범과 정책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를 상호 강화시킨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편견 및 고정관념과 같은 심리적 태도의 형성에 정서, 행동, 인지 세 가지 요인이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Breckler, 1984; Cuddy & Fiske, 2002). Ageism의 태도는 위의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서적 요인인 회피, 행동적 요인인 차별, 인지적 요인인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Ageism 개념은, 노인차별 또는 노인차별주의로 소개된 바 있다(김옥, 2003;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천희란, 김일호, 2013; 진철숙, 2015). 김주현(2009)은 Ageism과 Age discrimination(연령차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연령차별은 주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의 의미로 사용되어왔지만, 차별의 영역이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넓은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Ageism을 연령주의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주현(2009)이 제안한 바에 따라서 Ageism을 연령주의라 하겠다.

공포관리이론과 연령주의

연령주의에는 나이, 특히 고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 이로 인한 차별적 행동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개개인의 이러한 심리적 경향성으로 인한 사회 내 차별 양상과, 이러한 양상이 의도치 않은 채 자연스럽게 사회적 제도 및 정책에 스며들게 되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령주의의 심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주의의 심리적인 측면은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과 관련된다. 공포관리이론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공포에서 연령주의의 근원을 찾고 있다.

Martens, Goldenberg와 Greenberg(2005)는 공포관리이론(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을 통해 연령주의를 설명하였다. 즉, 죽음과 노쇠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걱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기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념의 문화적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령 또는 고령인 자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이것이 연령주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Martens et al., 2005). 이 이론은 문화인류학자 Ernest Becker(1973)가 그의 책 『죽음의 부정(The Denial of Death)』에서 소개한, 많은 인간 행위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행해진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Becker(1975; 1973; 1971)에 의하면, “살기를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라는 존재론적 역설이 인간에게 괴로운 공포를 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공포를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이러한 잠재적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불안완충기제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나는 문화적 세계관으로, 죽음 초월을 돕는 의미, 질서 및 가치 기준으로 가득 찬 사회 내 문화로부터 형성된 현실에 대한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자존감으로, 그 세계관 안에서의 개인의 가치이다(Greenberg, Schimel, & Martens, 2002).

자세히 설명하면, 이러한 잠재적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 인간은 죽음을 부정하기 위한 문화적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다. 즉, 공포관리(terror management)라 할 수 있는 죽음 부정의 핵심 신념은, 문화 안에서 사회화된 개인이 현실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으며 영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세계관이다. 죽음이 거의 유일한 확실성인, 위협적인 이 세계에서 개인의 문화적 세계관에 대한 신념은 심리적 평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동물 그 이상의 존재이며,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상징적 불멸의 존재라고 믿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Greenberg et al., 2002; Martens et al., 2005; 이비에스(EBS) 테스트작팀, 2014).

문화적 세계관의 신념이 제시하는 기준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은, 인간이 동물 이상의 존재라는 믿음을 제공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준다(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1999). 사회 안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이 됨으로서, 공유된 이상과 신념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타인과 연결됨으로서, 인간은 잠재적으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죽음의 공포를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평정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Schmeichel, Gailliot, Filardo, McGregor, Gitter, & Baumeister, 2009).

공포관리이론의 불안완충기제 작용의 역동을 설명하기 위해 Pyszczynski 등(1999)이 제시한 이중과정모델(Dual-Process Model)에 따르면,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 자극은 죽음에 대한 의식적 사고를 증가시키고, 이는 죽음 부정의 원위방어기제인 신체적 및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억압된다. 이러한 원위방어기제를 통한 지속적인 억압의 누적은 연령주의의 문화적 세계관 형성의 기저라 할 수 있다(Greenberg et al., 2002).

의식적 죽음현저성의 증가가 원위방어기제를 통해 죽음부정으로 억압되지 못하면, 무의식적 죽음사고접근성(Death Thought Accessibility)을 증가시키고, 이는 세계관 방어 및 자존감 추구의 근위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TMT를 바탕으로 한 이중과정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는 노인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가장 위협적인 공포를 상기시키며 의식적인 죽음현저성을 증가시켜 존재론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실체이다. 이러한 방어기제의 역동이 연령주의적 사고 및 태도의 근저에 있다. Martens 등(2005)은, 연령주의와 관련되어 노인이 상기시켜주는 존재론적 심리적 위협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죽음의 위협(the threat of death)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노인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예외 없이,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늙고,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즉, 죽음의 공포를 상기시켜주는 실체이다. 두 번째는 동물성의 위협(the threat of animality)이다. 노인이 겪는 신체적 퇴화는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라는 피조물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노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신체의 기능이 점차 감퇴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쇠약해지는 육체를 직접 직면하게 되는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인간이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세 번째는 무가치의 위협(the threat of insignificance)이다. 우리는 정신능력, 육체적 아름다움, 작업 생산성, 능력, 힘, 기민함 등의 영역이 나이가 들에 따라 감퇴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세계관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기능의 감퇴는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반

적인 불안완충기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무가치의 위협은 특히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 연령주의적인 세계관이 강하게 형성된 사람일수록 젊음이 자존감 획득에 더 큰 기여를 해왔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세월이 흘러 연령주의로 인한 차별의 대상인 노인이 되게 되면, 젊은 시절 획득해온 만큼의 자존감이 역으로 손상되어 더 큰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포관리이론에 기반한 죽음 공포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보다 노인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의 대상이 노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신 및 주변의 가까운 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죽음현저성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근접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점차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협의 증가는 그 동안 불안완충기제의 역할을 해온 근위 및 원위방어기제의 기능 저하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절망, 우울, 비통함으로 침전될 수 있다(McCoy, Pyszczynski, Solomon, & Greenberg, 2000). 따라서 고령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주의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노인의 연령주의로 인한 부정적 경험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지역사회노인(원영희, 2005; 천희란, 김일호, 2013), 공공부조노인(박현식, 2008)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었고,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을 비교한 논문이 있었다(김일호 천희란, 2015). 더불어, 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에게서 연령주의적 경험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오현성, 한은영, 2007) 및 고독(전상남, 신학진, 2011)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보고된다. 하지만, 심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노화 인식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령주의와 우울감 사이의 관계에서 공포관리이론에서 설명하는 존재론적 위협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노화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죽음공포와 우울감에서의 성차

Becker(1973; 김재영 역, 2008)에 의하면, 우울증은 삶과 죽음의 공포와 자기영속성의 갈망으로 요약된다. 성인이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피하거나 싸울 수(fleeing or fighting) 없다고 보는 경우, 우울증의 상태로 침전된다. 유아기의 무기력에 상응하는 이러한 침전은 의존성을 통한 생존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구실이 된다(Gaylin, 1968; Becker, 1973; 김재영 역, 2008). 따라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위협을 느낄 때, 대처기제가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개인은 우울로 침전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 자신이 동물적 존재라는 것을 강렬하게 직면한다. 폐경은 몸의 퇴화, 즉 노화를 분명히 나타내는 일종의 “동물적 죽음의 생일(animal birthday)”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Becker, 1973; 김재영 역, 2008). 이로 인해, 여성은 특정 시기에 삶의 육체적 사실에 강렬하게 심리적으로 직면한다.

반면, 남성은 이러한 동물적 죽음의 생일을, 여성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육체적 표식으로 강렬하게 경험하지 않는다. 반면 남성은 육체적 퇴화의 문제를 문화적 세계관의 상징적 힘으로 방어한다. 이는 남성이 삶에 끝

이 없는 척하면서, 자신의 노화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된다. 남성은 인간의 동물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노인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여성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Becker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때,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직면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다 점진적으로 죽음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집단과 우울감

노화로 인한 죽음 현저성의 증가는 연령 증가와 함께 점차 가중된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세계관이 주요한 불안 완충기제로 기능하는 만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Baltes 등(1980, 1987)은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 개체발생적 연령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진화적 역사 관련 요인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Lifton(1983)은 세계대전 참전군인 및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 베트남 전쟁 경험 집단 등을 연구하며, 역사적 동물로서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역사적 영향을 포함하여 발달상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세대의 개념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세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학 분야의 세대이론을 참고하였다. 세대 구분 시 다양한 개념적 기준이 활용되고 있는데(Kertzner, 1983),

학술적으로 구분된 세대의 개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침투적인 특성이 있어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박재홍, 2003). 여러 개념적 기준 중에서 박재홍(2003)이 친족계보적 의미의 세대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제안한 ‘사회역사적 세대(socio-historical generation)’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발달단계적인 세대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 사회역사적 세대란,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을 가지며 그에 따라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및 사회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중노년기에 해당하는 남성군을 베이비부머 세대와 전기노인 세대 및 후기노인 세대의 세 세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세대 집단은 한 문화권 내에서도 다소 상이한 사회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한 집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연구조사 당시 51-59세)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급속한 경제 성장 및 IMF 외환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정리해고, 직업 전환 등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주도했던 70-80년대 민주화의 물결을 성장기에 경험하며 집단주의 사회에서 보다 개인주의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겪었다. 즉, 민주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급변기에 주역의 역

할을 해오며 독특한 세대적 특징과 공유된 문화적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학회지 목록에 포함된 총 18종의 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검색하였을 때, 심리학 분야에서 성인 후기 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주로 60-65세 이상을 노인집단으로 정의하고 연구하거나(김원경, 2001; 방석찬, 2002; 고선규 외, 2003; 배지연, 김원형, 2005; 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김현순, 김병석, 2007; 유경, 강연옥, 2009; 조아라, 정영숙, 2012; 서경현, 김태민, 손술, 김혜경, 2013; 조명현, 장재윤, 유경, 이주일, 2015; 이혜림, 명재석, 오설아, 최승원, 2016), 50-55세 사이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장노년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거나(최진영, 이지은, 김명진, 김호영, 2006; 김호영, 최진영, 석정서, 2010; 박인조, 이주일, 2014), 30-60대 사이의 연령군을 중장년 또는 중년으로 정의하고 연구하는(유성은, 권정혜, 1997; 박수애, 조은경, 2002; 신희석, 2002; 안상수, 탁진국, 유태용, 한태영, 한영석, 2006; 이승미, 오경자, 2006; 김정란, 이은희, 2007; 윤성민, 신희천, 2012; 홍주연, 윤미, 2013; 박선영, 권석만, 2014; 고효정, 송원영, 2014; 이인영, 정영숙, 2016) 등 베이비부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산업 및 조직 학회에서 발표된 김수진과 이주일(2016)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세대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인구집단이다(통계청, 2010a). 이들은 전 생애 발달상에서 현재 후기 중년기에 속하고,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부모세대의 부양과 더불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면서,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55세에 진입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가 시작되어, 경제적 변화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은퇴와 관련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컸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점차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존재론적 위협에 차츰 노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발달단계적인 취약성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현 남성 베이비부머가 속하는 50대의 경우, 약 9.8%가 최근 1년 간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김주현과 한경혜(2012)의 연구에서는 약 13.5%의 베이비부머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정순돌과 구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우울증 비율이 33.5%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김미혜, 정순돌, 박현주(2014)의 미국, 영국 및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비교한 연구에서, 미국 및 영국의 베이비부머와 비교하여 비록 점수 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베이비부머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기노인 세대 및 후기노인 세대

노인을 정의할 때 사회적 노화를 기준으로, 정년퇴직 연령인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서경현, 김영숙, 2003; 김문영, 정현희, 2003; 고선규, 권정혜, 2007; 김현순, 김병석, 2007; 박미진, 2007; 유경, 강연욱, 2009; 백지은, 2010; 이해림 외, 2016). 또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60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김승연 외,

2007; 김지현, 민경환, 2010; 조아라, 정영숙, 2012; 박혜옥, 육성필, 2013; 김영경, 김혜리, 2015; 조명현 외, 2015). 즉, 60-65세 이상의 연령 집단이 주로 노인 집단으로 정의되어왔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60-65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노인집단으로 정의할 경우 노인의 개인적 및 사회적 특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임정연, 김호정, 염유식, 2016; 최성재, 장인협, 2010).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인 노인 세대는 1954년 이전 출생자(연구조사 당시 60세 이상)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하고(통계청, 2010b), 전 생애 발달단계 상 노년기에 해당한다. 전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달리, 노인 세대는 제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성장기에 죽음현저성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세대 내 사회역사적 성장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1945년 해방을 기준으로 1954-1945년에 출생한 전기노인 세대(조사 당시 60-69세)와 1944년 이전에 출생한 후기노인 세대(조사 당시 70세 이상)로 노인 집단을 세분화하였다.

전기노인 세대는 해방 및 한국전쟁 시기에 아동기를 보내고, 전후 복구기간에 청소년기를 지낸 세대이다. 이후 원조경제와 경제개발계획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등 국가 주도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사회변화를 주도하였다. 즉, 이들은 아동기에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장하였으며, 전쟁을 넘어 국가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단주의적 문화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IMF의 사회적 경제위기상황과 정보화 시대의 전환 등 연달아 발생하는 시대적 변화를

헤쳐 나가야 하였다.

한편, 후기노인 세대는 일제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모두 체험한 세대로,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피부로 체감하며 성장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식민지의 억압과 전후의 냉전, 한민족 안에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겪었다. 극도의 가난과 사회적 혼동의 시기를 살아낸 이들에게 생존은 문화적 세계관의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전기 및 후기노인 세대가 속하는 노년기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의 저하, 사회적·경제적 역할의 상실, 가까운 주변 사람의 죽음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 어려움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실을 경험하면서, 증가된 수준의 존재론적 위협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부인하는 기존의 불안 완충기제로는 해소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죽음에 압도되어, 우울로 침전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 보건복지부(2015)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남성 인구의 12.5%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70세 이상 남성 인구에서는 10.6%가 우울감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경향성이 보고되면서, 남성 노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듯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전기 및 후기노인 세대 모두, 우울증으로의 침전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생애 발달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서로 다른 사회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 만큼, 각 세대 간에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양상에 상이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세대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각 집단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노화의 인식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전 생애 성장과 발달 과정의 한 부분으로, ‘늙어감’ 또는 ‘나이 들어감’의 의미를 지닌다(최성재, 장인협, 2010). 노화의 시작 시기에는 개인차가 크고, 개인 내에서도 각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노화에 대한 인식 정도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Rogers(1986)는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노화에 대해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며 이런 인식은 개인의 경험과 연령주의를 포함하는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으로부터 유래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 자신을 노인으로 보는 것을 회피하고 부정하며, 실제보다 더 늦게 자신을 노인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ltena & Powers, 1978; Kaufman & Elder, 2002; Kleinspehn-Ammerlahn, Kotter-Grühn, & Smith, 2008). 이와 같이, 우리는 출생일에 기반한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연령정체감(age identity)을 갖는다(Kaufman & Elder, 2002; 장휘숙, 2010).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연령이라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71.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65-69세 노인의 경우, 75.3%가 자신이 노인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70-74세 노인의 경우 28.9%, 75-79세 노인의 경우 15.7%가 자신의 나이보다 늦은 나이를 노인연령으로 보고하였다. 51세에서 92

세에 해당하는 연령을 대상으로 한 Kaufman과 Elder(2002)의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평균 생활연령은 약 70세였으나, 주관적 연령은 약 62세, 타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연령은 약 63세로, 생활연령보다 약 7-8세 젊은 나이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노인연령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약 74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편적인 노인 연령기준은 물론, 생활연령 평균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또한 성차도 관찰되었는데, 남성의 경우 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을 노인연령이라 응답하는 양상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14; Musaiger & D'Souza, 2009). 이러한 결과는 Becker(1973)의 동물적 죽음의 생일을 경험하는 여성과, 그와 같은 육체적 종류의 표식을 겪지 않는 남성에게 있어, 쇠퇴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연령주의는 그 사회 내 개인에게 내재화되게 되고,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즉 자신을 노인으로 인식하게 될 때, 연령주의의 화살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Levy & Banaji, 2002). 지각되고 내재화된 연령주의의 수준은 향후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반영된다. 더불어, 나이 들어가는 노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죽음이 좀 더 현저해지게 되는데, 노화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만연한 문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자신 및 가까운 주변인의 노화 인식 등으로 인해 죽음 현저성에 증가된 수준으로 노출된다면, 존재론적 위협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다(Greenberg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 수준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죽음 현저성이 점차 증가하며 점진적으로 가중되어가는 존재론적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화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화 인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점 쇠퇴하는 노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의 나이듦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정순돌, 김민경, 김은주, 김주현, 2016)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노화 인식에는 크게 신체적 기능 쇠퇴와 관련된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으로 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심리사회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있다(정순돌, 전해상, 송아영, 2015).

신체적 노화 인식

생물학적 측면에서 노인의 외모와 관련된 노화현상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 피부, 머리카락, 치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중년기 중반부터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며, 머리카락은 점차 감소되고, 머리카락 수는 물론 굵기도 점점 더 가늘어지며, 색소가 사라지면서 흰머리로 변한다. 중년기가 끝날 무렵에 이르면, 감각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여, 시력이 감퇴되고, 노인성 난청 또한 시작되게 된다. 더불어, 심혈관 기능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폐, 신장, 간, 신경계의 활동 등 신체 기관 전반의 활동이 저하된다.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및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이 나타나고 그 외 암, 신장·방광질환, 골다공증 등이 자주 발생한다(장휘숙, 2000a).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신체적 노화의 인식을 점차 증가시키게 된다.

김미혜 외(2014)의 연구에서,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미국과 영국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경우 실제 만성질환 진단 여부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상태와 주관적인 신체적 건강상태 인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신체적 변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 현저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신체적 노화를 직접 경험하는 자신 또한 존재론적 위협에 점차 노출시키면서, 우울감으로의 침전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수, 남종원, 차지현, 광동일, 1999; 이수애, 이경미, 2002; 윤현숙, 구분미, 2009; 김혜령, 2015). 노년기와 중년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는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 2005; 신창환, 2010).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노인집단을 비교한 정순돌과 구미정(2011)의 연구에서도, 세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에의 영향 요인으로 신체적 건강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베이비부머의 경우, 건강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지위의 하락, 의료비 부담, 빈곤, 건강문제의 심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김미혜 외, 2014).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 변화와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정순돌, 임정숙, 정세미, 이미우, 2016; Maier & Smith, 1999).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노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노화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존재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즉 연령주의를, 노인이 되어가는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Levy, 2003; 2009).

주관적인 노화의 인식에 대해 신체적 노화의 인식이라 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자기지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이라 볼 수 있는 노화에 대한 자기지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Jang, Poon, Kim과 Shin(2004)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의 수, 병가를 낸 횟수, 감각기능의 저하 등 실제 건강상태가 저하된 노인들의 경우, 건강에 대한 자기지각이 더 부정적이고 이것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체적 노화 인식과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적 노화 인식의 증가는 심리사회적 노화의 부정적 인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정순돌, 김민경, 김은주, 김주현, 2016; Jang et al., 2004), 신체적 노화 인식이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공포관리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령주의적 사고 및 태도와 우울감 사

이의 관계에서, 신체적 노화 인식과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직렬다중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 남성을 중심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전기노인 세대 및 후기노인 세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우울감에서 남성 베이비부머,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 세대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
2. 세대집단,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각 세대집단에서, 연령주의와 우울감 간의 관계를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이 직렬다중매개하는가?

설정된 연구문제 3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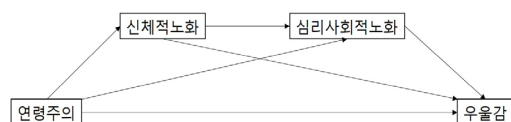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진행된 「2014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

다. 조사대상의 추출에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표본을 비례할당 및 가중표집 하여,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훈련된 전문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자료수집 당시 51-59세)에 해당하는 총 69명의 자료와 전기노인 세대 남성(자료수집 당시 60-69세)에 해당하는 총 151명, 그리고 후기노인 세대 남성(자료수집 당시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총 6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연령주의

개인의 연령주의(ageism)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주현(2012)이 개발한 연령주의척도 중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 연령주의척도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연령주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그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하위 척도는 Fraboni, Saltstone과 Hughes(1990)의 Fraboni 연령주의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와 Cherry와 Palmore (2008)의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ROPE)의 문항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Fraboni 등(1990)은 인지적인 측면만을 측정하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척도로써 FSA를 개발하였다. 또한 Cherry와 Palmore(2008)의 ROPE 척도는 실제적인 차별 행동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SA와 ROPE의 문항을 토대로 한국인에게 맞게 표준화된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하위척도를 활용하여,

태도를 구성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노인에게 나이에 관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노인이 나에게 말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13-65까지 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우울감

개인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개발된 CES-D 20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ed Mood Scale; Radloff, 1977)를 간소화한 단축형 CES-D 10을 사용하였다(Andersen, Malmgren, Carter, & Patrick, 1994). 이 척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의 일상우울(normal depression)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고기동 외, 2012; 김진영, 2009;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유정현, 성혜영, 2009; 차승은, 한경혜, 2006).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을 나타내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0-30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였다.

신체적 노화

신체적 노화 인식은 Barker, O'Hanlon, McGee, Hickey와 Conroy(2007)의 신체적 노화 측정도구의 1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건강 변화를 경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변화

의 원인이 노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점수의 산출은 (변화의 원인이 노화라고 여겨지는 것의 총 개수 / 건강 변화의 경험 총 개수) X 100의 수식으로 이루어지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100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건강 변화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의 경우 .78, 변화의 원인이 노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의 경우 .77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노화

심리사회적 노화는 Smith, Tobin과 Fullmer (1995)의 노화에 따른 부정적 변화의 인식 척도(self-perceived adverse age-change)를 김고은(2010)이 번안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mith 등(1995)이 사용한 노화에 따른 부정적 변화의 인식이라는 용어 대신, 정순돌 외(2015)가 사용한 심리사회적 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중립적으로 명명하기 위함이다.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문항의 예로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다”, “몇 년 전보다 일과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등이 포함된다.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나타내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까지 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 및 PROCESS 프로그램 (Hayes, 2013)을 활용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각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와 전기노인 세대 및 후기노인 세대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남성 세대집단 및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령주의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이 직렬다중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프로그램(Hayes, 2013)을 활용하여 각 남성 세대 집단에서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세대의 경우 54.36세($SD=2.27$), 남성 전기노인 세대의 경우 66.18세($SD=1.74$), 남성 후기노인 세대의 경우 74.02세($SD=1.59$)였다. 교육 년수는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평균 13.90년($SD=2.29$), 남성 전기노인 세대의 경우 평균 10.77년($SD=2.77$), 남성 후기노인 세대의 경우 평균 8.40년($SD=4.10$)으로 젊은 세대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베이비부머와 전기 및 후기 노인 세대 집단의 세대적 차이가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 집단의 경우 모두 현재 직업이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였고, 전기노인 세대의 79.5%, 후기노인 세대의 41.3%가 현재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에서 세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세대집단에서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노화 인식($F=8.72, p<.001$),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F=15.76, p<.001$) 및 우울감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남성 베이비부머

표 1. 집단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베이비부머 (N=69)		전기노인 (N=151)		후기노인 (N=63)	
	M(SD)/ 빈도(%)		M(SD)/ 빈도(%)		M(SD)/ 빈도(%)	
연 령 (범위)	54.36 (51-59)	(2.27)	66.18 (60-69)	(1.74)	74.02 (70-86)	(1.59)
교육년수	13.90	(2.29)	10.77	(2.77)	8.40	(4.10)
직업있음	69	(100%)	120	(79.5%)	26	(41.3%)

표 2. 집단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와 일원분산분석 결과

하위척도	세대집단	M	SD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
연령주의	베이비부머	36.14	6.85	집단간	3.64	2	1.82	.04	-
	전기노인	36.09	7.26	집단내	14289.67	280	51.04		
	후기노인	35.84	7.19	전 체	14293.31	282			
신체적 노화	베이비부머	67.46	39.90	집단간	15512.72	2	384.77	8.72***	1<2, 3
	전기노인	84.42	26.30	집단내	249002.49	280	24.41		
	후기노인	85.31	24.42	전 체	264515.22	282			
심리사회적 노화	베이비부머	16.17	5.58	집단간	769.55	2	80.37	15.76***	1, 2<3
	전기노인	17.88	4.93	집단내	6835.51	280	18.23		
	후기노인	20.94	4.17	전 체	7605.06	282			
우울감	베이비부머	8.49	4.15	집단간	160.75	2	7756.36	4.41*	1, 2<3
	전기노인	8.87	4.45	집단내	5104.31	280	889.30		
	후기노인	10.52	3.93	전 체	5265.06	282			

* $p < .05$, *** $p < .001$

($F=4.41$, $p < .05$) 변인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연령주의의 경우, 세대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어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에 대해 사후검증을 진행하였다. 사후검증은 우울감의 경우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고, Levene의 등분산 검증에서 등분산에 대한 영가설이 기각된 신체적 및 심리적 노화 인식 변인은, Dunnett T3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신체적 노화 인식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른 세대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더 낮았다($M_{\text{베이비부머세대}}=67.46 < M_{\text{전기노인세대}}=84.42$, $M_{\text{후기노인세대}}=85.31$). 또한 신체적 노화 인식에서 남성 전기 및 후기 노인 세대에서 평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천정효과가 시사되었다($M_{\text{전기노인세대}}=84.42$, $M_{\text{후기노인세대}}=85.31$).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에서는 후기노인세대가 다른 세대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_{\text{후기노인세대}}=20.94 > M_{\text{베이비부머세대}}=16.17$,

$M_{\text{전기노인세대}}=17.88$). 마지막으로, 우울감의 경우 후기노인 세대가 다른 세대 집단과 비교하여 우울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_{\text{후기노인세대}}=10.52 > M_{\text{베이비부머세대}}=8.49$, $M_{\text{전기노인세대}}=8.87$).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대집단과의 상관관계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0, 전기노인 세대를 1, 후기노인 세대를 2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세대집단은 연령주의를 제외한 신체적 노화 인식,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 변인과 .01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각각 $r=.20$, $.31$, $.16$, $p < .01$), 고령의 세대집단일수록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세대집단	-				
2. 연령주의	-.01	-			
3. 신체적 노화	.20**	.09	-		
4. 심리사회적 노화	.31**	.34**	.29**	-	
5. 우울감	.16**	.21**	.13*	.45**	-

* $p < .05$, ** $p < .01$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수준이 높고, 증가된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주의는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 = .34, .21, p < .01$). 또한 신체적 노화 인식은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29, p < .01, r = .13, p < .05$).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과 우울감 간에는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r = .45, p < .01$)이 관찰되었다.

연령주의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남성 베이비부머,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주의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시 표준화점수를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랩($K = 10000$)하였다. 또한, 등분산성 가설의 위배가 시사되어, 이분산성일치표준오차추정량(heterosc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 estimato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내에서는 연령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및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신체적 노화 인식이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41, p < .001$). 또한 신체적 노화의 인식이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는 .05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25, p < .05$). 더불어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에서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01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42, p < .01$). 신체적 노화 인식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변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55, p < .05$). 즉, 신체적 노화 인식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을 .172 단위만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집단의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를 그림 2에 실선으로 제시하였다.

남성 전기노인 세대의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연령주의가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43, p < .001$). 또한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이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

표 4. 연령주의와 우울감에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직렬다중매개효과

경로	베이비부머			전기노인			후기노인		
	추정치 (b)	SE	임계치 (C.R.)	추정치 (b)	SE	임계치 (C.R.)	추정치 (b)	SE	임계치 (C.R.)
연령주의 → 신체적노화인식	.16	.14	1.11	.03	.08	.43	.14	.09	1.51
신체적노화인식 → 심리사회적노화인식	.41	.11	3.83***	.11	.07	1.72†	.14	.17	.80
연령주의 → 심리사회적노화인식	.19	.14	1.38	.43	.09	4.57***	.27	.12	2.31*
신체적노화인식 → 우울감	.25	.12	2.04*	-.07	.07	-1.04	-.18	.10	-1.86†
심리사회적노화인식 → 우울감	.42	.12	3.44**	.38	.08	4.68***	.32	.15	2.08*
연령주의 → 우울감	.01	.11	.07	.12	.09	1.33	-.00	.14	-.00

간접효과	추정치 (Boot) SE	95% 신뢰구간		추정치 (Boot) SE	95% 신뢰구간		추정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Boot) LLCI	(Boot) ULCI		(Boot) LLCI	(Boot) ULCI
연령주의 → 신체적노화인식 → 우울감	.039 (.040)	-.025	.132	-.002 (.007)	-.018	.014	-.026 (.024)	-.082	.012
연령주의 → 신체적노화인식 → 심리사 회적노화인식 → 우울감	.027 (.029)	-.016	.100	.001 (.004)	-.005	.011	.006 (.012)	-.010	.040
연령주의 → 심리사회적노화인식 → 우 울감	.079 (.065)	-.022	.230	.164 (.047)	.081	.264	.086 (.053)	.003	.206

직접효과 (연령주의 → 우울감)	추정치 (.114)	SE	임계치 (.325)	추정치 (.124)	SE	임계치 (-.061)	추정치 (-.000)	SE	임계치 (.144)
총효과	.153 (.122)	-.091	.397	.287 (.088)	.114	.460	.066 (.140)	-.212	.344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주. 부트스트랩 결과의 경우, 추정치가 작은 값이 포함 되어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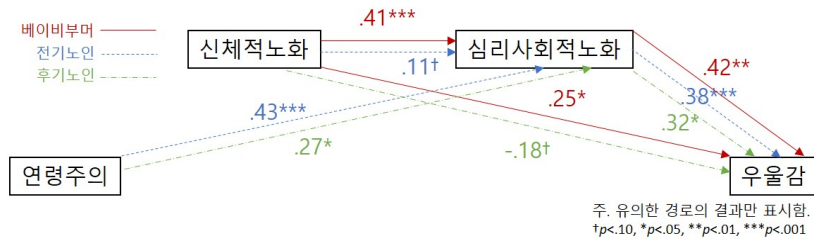


그림 2. 연령주의와 우울감에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다($b=.38, p<.001$). 한편, 신체적 노화 인식이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는 유의수준 .10에서 정적인 경향성을 보였다($b=.11, p<.10$).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성 전기노인 세대의 경우 연령주의에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매개로 우울감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64, CI .081-.264$). 즉, 연령주의 수준이 높은 전기노인 세대 남성은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이는 우울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울감이 .164 단위만큼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포함하는 직렬다중매개모형의 총효과가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87, CI .114-.460$). 이는 연령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이 증가하는 직렬다중매개의 직·간접 경로를 거쳐 결과적으로 우울감을 .287 단위만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전기노인 세대의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로는 그림 2에 첫 번째 점선으로 함께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 후기노인 세대의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주의가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27, p<.05$). 또한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이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유의수준 .05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32, p<.05$). 더불어 신체적 노화 인식이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는 유의수준 .10에서 부적 경향성을 보였다($b=-.18, p<.10$).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성 후기노인 세대

의 경우 연령주의에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매개로 우울감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b=.086, CI .003-.206$), 연령주의 수준이 높은 후기노인 세대 남성일수록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이는 우울감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우울감을 .086 단위만큼 더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2에는 후기노인 세대의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로가 두 번째 점선으로 함께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노화 인식,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 변인에서 세대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후검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신체적 노화 인식의 경우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그 이전 세대인 전기 및 후기노인 세대가 더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신체적 노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 및 후기노인 세대가 더 고령의 집단이고,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 집단보다 실제적으로 신체적 노화가 더 진행된 집단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점진적으로 노화를 인식해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전기노인 세대 에서 계단적 증가 양상을 보이며 측정치의 천정효과가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대집단이 겪어온 시대적 변화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면서 급격히 가속화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기존 사회와 다른 새로운 시대에의 적응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당시 후기 중년기에 해당하였던 남성 전기노인 세대 구성원들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나이들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기존 직업 기능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노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은퇴가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 중 하나로 보고되는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백지은, 2012), 남성에게 ‘사회적 죽음의 생일’로 강렬하게 직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서히 죽음공포에 노출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갑작스레 사회적 죽음을 강요받았으나, 여전히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후기 중년기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은 이들은, 자신이 직면한 사회적 노화를 신체적 나이들보다 투사하여, 나이들의 초기 신체적 변화를 노인됨의 과정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갑작스럽게 맞이한 사회적 죽음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이들은 실제적으로도 신체적 노화가 가속화되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전기노인 세대가 겪어낸 사회적 사적 배경으로 인해, 중년기 후기부터 신체적 노화를 나이들이라기 보다는 노인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전기노인 세대는, 현재 자신보다 10년 더 고령인 후기노인 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체적 노화를 인식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의 경우, 후기노인 세대가 그 이후 두 세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이 후기노인 세대에서 유의하

게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기능저하의 증가가 누적되면서, 실존적 위협을 증가시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증가에 영향을 준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신체적 노화 인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에서도 예상되었던 점진적인 증가 양상이 아닌, 후기노인 세대 시점에서의 계단적 증가가 나타난 점이다.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이러한 계단적 증가 양상 또한 세대 집단이 당면해온 시대적 변동을 통해 설명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본 연구대상 전기노인 세대의 약 80%가 여전히 직업 활동 중인 것으로 응답한 것에도 나타나듯이, 사회적 죽음의 생일을 이미 경험한 이들에게 이전 세대보다 더 긴 직업적 사회활동 기간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에 고군분투 하면서도 장기간 사회활동을 유지해온 이들의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은, 후기노인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보다 10년 젊은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좀 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지금의 전기노인 세대는, 신체적 노화 인식 수준이 10년 고령인 후기노인 세대만큼 높으면서도,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은 10년 젊은 베이비부머 세대 수준에 머무르는 불균형 상태에 처해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는 전기노인 세대가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사회역사 세대적인 배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의 전기노인 세대는 해방직후 출생자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종전 시기까지의 출생자를 포함하는 세대 집단으로, 영유아기에서 아동기에 이르는 생애 초기에 전쟁을 경험하며 현저한 죽음공포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이다. Freud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상에서 이 시기는 인간의 육체성을 문화적 세계관으로 덮어 그 위에 올라서고,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향했던 의존성을 문화적 세계관으로 이전하며 무력성을 극복하고 자율성과 통제감을 획득해 나가야 하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이들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죽음을 목격하며 극단적인 수준의 죽음현저성에 노출되는 등 죽음공포를 늘 피부로 느끼며 성장하였고, 어머니가 느끼는 죽음불안 또한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은 죽음공포와 인간의 피조물성이 감추어지지 않는 문화적 세계관 안에서 사회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년기에 경험한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의 상황에서 사회적인 죽음에 당면한 이들에게, 세대 집단이 공유하는 생애 초기 문화적 세계관이 활성화되며, 세대 구성원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사회적 안전감의 상실로 인해 유아기의 무기력함으로 침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죽음을 육체의 퇴화로 투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후기 중년기의 다소 이른 시기에 인간의 육체성과 피조물성을 직면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적인 사회적 기능을 탐색하고 유지해나가야만 하는 상황은, 생애 초기 문화적 세계관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죽음과 인간의 피조물성에 대한 자극이 만연했던 사회에서 생존해낸 과거 경험은 사회적 기능저하가 야기할 수 있는 무가치의 위협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속도를 다소 늦추어 준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의 임상집단이 아닌 지

역사회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일반우울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 임상 수준의 높은 우울증은 아니지만, 가장 고령의 집단인 후기노인 세대에서의 우울감이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최고령 집단의 정서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한편, 연령주의 수준의 세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Palmore, 2001).

둘째, 세대집단과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세대 집단은 신체적 노화 인식,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고령의 집단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를 인식하고, 우울감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령주의는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연령주의적 세계관이 강하게 형성된 사람일수록 자신이 연령주의로 인한 차별의 대상이 되는 노인에 다가가게 되면 타인으로서의 노인에게 향했던 비난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서, 심리적 위협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연령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령의 집단에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가중되는 존재론적 위협을 기존의 불안완충기제를 통해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우울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신체적 노화 인식은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우울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신체적 노화의 진행은 젊음이 가져다 주던 가치와 기능의 상실과 관련된 심리사회

적 노화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적 노화 인식은 육체적 기능의 퇴화와 동물적 인간의 피조물성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발견해나가며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외면해온 죽음공포를 마주보게 하는 신체적 노화 인식의 과정은 우울감으로의 침전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과 우울감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나이듦의 추함으로,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의 기민함이 둔함으로, 기존에 유지되던 높은 활력과 에너지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어 가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 안에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우울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공포관리이론과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직렬다중매개 연구모형을 지지해준다.

셋째, 연령주의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신체적 노화 인식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변인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각각의 세대집단에서 검증하였다.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신체적 노화 인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이 부분매개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현재 이들이 속하는 후기 중년기는, Jung이 청년(puer)과 연장자(senex)의 대극으로, Levinson은 젊음(young)과 늙음(old)의 양극으로 표방될 수 있다고 주장한 시기(Jung, 1964; Levinson, 1978; 김에순 역, 2003), 피부탄력성이 감소되고, 흰머리가 증가하는 등 외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나이 들어가는 신체적 노화가 실제적으로 조금씩 진행되어 가는 시기에 해당하고, 이전 두 세대와 비교하여 신체적 노화 인식의 절대적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신체적 노화를 통해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점진적으로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억압하며 부인해왔던 죽음공포를 조금씩 직면하게 되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 외집단으로 생각하는 ‘노인’에 자신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음을 육체적 변화를 통해 발견해나가면서, 우울감으로 침전될 수 있다. 더불어 육체적 변화와 함께, 젊은 시절의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민첩함과 기민함이 점차 둔화되어감을 체감하고, 또한 은퇴를 하였거나 앞두고 있는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직면하며,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무가치함, 쓸모없음을 느끼게 되면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죽음의 위협과 동물성의 위협을 직면하게 되는 것에 더하여, 무가치의 위협이 가중되었을 때 또한 우울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다.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성인기에 IMF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죽음을 한 차례 마주한 경험이 있는 세대집단으로, 가장 활발히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발달의 시기에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했던 사회적 죽음과, 그 상황에서 생존해나간 경험을 통해, 과거의 평생직장 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한 직업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박태정(2013)의 연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업적 은퇴를 끝이 아닌 삶의 연속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에도 드러나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다가오는 사회적 죽음의 생일 앞에서, 이전 전기 및 후기노인 세대와는 달리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러한 적응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은퇴의 나이가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안적

직업 활동을 탐색하며 사회 활동을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값은 이전 세대보다 낮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해가는 나이듦의 인식으로 인해 부인하고 싶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마주해야만 하는 발달의 시기를 살아내고 있음에도, 죽음공포와 관련된 연령주의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세대집단의 적응유연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같은 해에 조사된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에서 우리나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이 평균 약 72세로 보고되는 것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50대에 해당하는 이들은 아직 자신을 연령주의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령주의의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기 및 후기노인 세대의 경우, 본 연구모형 상 신체적 노화 인식 변인이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노인 세대에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신체적 노화 인식이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측정도구에서 천정효과가 시사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신체적 노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높은 점수의 영향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세대집단 남성이 어느 정도 자신의 신체적 노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노인 세대에 해당하는 65-69세 노인남성의 75.3%가 자신이 노인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14)를 고려할 때, 많은 전기노인 세대 남성

이 아직 자신이 노인임을 심리사회적으로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앞서 시대적 변동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적 노화를 서둘러 경험해야만 했던 것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체적 노화 인식과 불균형을 보이며 이들의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수준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슷하게 10년 정도 젊어, ‘노인’으로의 온전한 수용이 늦춰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로 인해 전기노인 세대의 약 3/4에 해당하는 남성의 연령정체성은 아직 노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본 연구결과에서 여전히 신체적 노화 인식의 영향이 경향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기노인 세대에서는 신체적 노화 인식이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즉, 최고령 세대인 후기노인 세대에서는 신체적 노화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적 경향성이 나타난 것이다. 고령이 될수록 주변의 죽음 뿐 아니라, 동년배 지인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훨씬 잦아지는 등 죽음현저성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 그 강도도 더 강해진다 하겠다. 이러한 죽음 현저성에의 잦은 노출을 통해 점차 자기 자신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것은 자신의 신체적 노화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후기노인 세대에 해당하는 70-74세 노인의 71.1%, 75-79세 노인의 84.3%가 자신이 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한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14)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는 후기노인 세대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노화를 받아들일수록 우울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에 제2차 세계

대전 및 한국전쟁을 겪은 후기노인 세대의 세대적 특징도 신체적 노화의 수용을 도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에 있을 때조차 죽음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죽음공포가 만연한 시대에서 성장한 후기노인 세대 남성은 전기노인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수준의 죽음공포의 시기를 살아내며 생존한 세대이고, 성장기에 겪은 이 경험은 노인이 되어 상대적으로 훨씬 점진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지는 육체적 퇴화의 수용을 도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 세대에서는 ‘연령주의→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우울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높은 연령주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지난시절 젊음에 대한 우울감이 컸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노인임을 직면해 갈수록 과거 나이 든 사람들에게 향했던 화살이 점차 자기 자신을 겨누게 되면서, 심리적 위협의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특히 무가치의 위협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 젊음이 가져다주었던 가치를 점차 잃어가며 나이든 자신의 무가치함을 직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이 간접효과는, 연령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을 증가된 수준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는 우울감으로의 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이러한 우울감으로의 경로는 전기노인 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전기노인 세대가 속하는 초기 노년기는, 억압하고 부인해왔던 죽음공포와 마주보게 되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이로

인한 우울감 증가에 특히 취약한 시기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한 연구모형의 총효과가 세 세대집단 중 전기노인 세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도 이를 지지한다.

다만, 연구모형을 통해 예상하였던 ‘연령주의→신체적 노화 인식→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우울감’으로의 경로가 연령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전기노인 세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앞서 설명한 전기노인 세대가 겪은 시대적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으로, 중년기에 사회적 죽음의 생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전기노인 세대 남성들은, 직업 활동의 중단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른 시기에 사회적 죽음에 당면하였다. 갑작스런 사회적 죽음의 생일을 직면하며, 이들은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였던 어린 시절 형성한 문화적 세계관을 통해 방어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된 무가치함을 자신의 육체에 투사하여 노인됨으로의 노화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인 이른 시기에, 자신의 육체적 변화를 퇴화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속화된 신체적 노화가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본 연구 자료가 수집된 초기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이전 세대가 속하는 후기 노년기와 비슷한 수준의 신체적 노화 인식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노화를 신체적 노화에 투사하는 것을 촉진시킨 동일한 문화적 세계관은, 대안적 사회 활동의 유지를 장기간 요구 받는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의 속도를 늦추었고,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으로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육체적으

로는 퇴화과정이 거의 진행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전기노인 세대 남성을 불균형적인 노화 인식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이러한 전기노인 남성이 살아낸 사회역사 세대적 특징으로 인해 연구모형을 통해 예상했던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후기노인 세대에서도 동일한 ‘연령주의→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우울감’으로의 경로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는데, 효과크기는 전기노인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후기노인 세대가 신체적 노화의 수용과 함께, 나이들이 가져오는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점차 수용해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기노인 세대는 긴 전쟁의 시간과 전후 복구의 시간을 살아낸 생존자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내며, 내일 다가올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죽음공포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노인이 되어 실존적 공포를 발생시키는 점진적인 육체의 퇴화를 직면하였을 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과거의 시대적 죽음공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의 안전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노인됨을 수용해나갈 수 있도록 도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후 두 세대집단과 달리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사회적 죽음의 생일을 맞을 수 있었던 후기노인 세대는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의 심리사회적 노화를 점진적으로 수용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이 세대집단에서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존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것 또한 시사한다.

McCoy 등(2000)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

상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적 세계관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문화적 세계관에서 기능했던 방어기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시기에 고착되어 새롭게 진입한 세계관 안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부인할 수만은 없는 노인이 되면, 새로운 방어기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Erikson의 발달이론에서 후기 중년기에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생식성(生殖性; generativity)의 지향을 통해, 상징적 불멸(symbolic immortality)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중·노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 발달과업을 더 세부적으로 정리한 Peck(1968)은 노년기에 달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자아분화대 직업역할물두, 신체초월 대 신체물두, 및 자아초월 대 자아물두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Peck의 주장은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양상의 해석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직업적 자기에서 나아가 새로운 자기 역할의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적 노화의 수용은 신체초월의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심리사회적 노화의 수용을 포함하는 노인됨의 수용은 자아초월의 달성을 요구한다. 자아초월의 개념은 사회학자인 Tornstam(1989)에 의해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로도 소개된 바 있다.

초월적 자기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상징적 불멸의 심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상징적 불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Lifton과 Olson(2017; 1974; 이일철 역, 1981)이 제안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Lifton과 Olson은 Freud와 Jung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태계와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심상을 창조해가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상징적 불멸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생물·사회적 불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방식, 창조적 방식, 종교적 방식, 자연 방식, 경험적 초월의 다섯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다섯 방식을 통한 상징적 불멸의 획득은 기존의 지배적인 상징과 심상을 재구조화하게 되고, 이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즉, 시간의 무한함 속에서 영속성에 관한 삶의 새로운 양식으로 인지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차례의 긴 전쟁의 생존자인 후기노인 세대는 전쟁의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생존자로서 자신이 살아남게 된 이유를 고뇌하며,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생물학적 불멸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것에 대한 애착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집단주의적 세계관에 더 강하게 의존하게 된 이들은, 가족의 좁은 개념에서 나아가, 한민족,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물·사회적 불멸의 심상을 통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동물적 죽음의 수용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노인됨을 수용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험하는 우울감의 절대적 크기는 후기노인 세대에서 그 이후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존재론적 위협 이외에 후기노인 세대의 우울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통증과 같은 건강상태(Fishbain, Cutler, Rosomoff, & Rosomoff, 1997) 및 빈곤과 같은 경제적 곤란(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등 개인적·경

제적·사회적인 다양한 요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편, 본 논문에서 살펴본 세대 집단 중 특히 전기노인 세대는 누적되어가는 존재론적 공포가 절정에 이르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기노인 세대에서 관찰되는 신체적 노화 인식과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간의 불균형은, 이들이 아직 죽음을 부인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격차가 커, 심리적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기력했던 어린 시절 겪은 전쟁으로 인해, 죽음의 심상이 삶의 심상을 압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죽음은 더욱 큰 공포로 이들을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죽음의 의식화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치료적 접근을 통해,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Frankl(1959; 1962)은 항상성의 균형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반대하며, 의미추구를 자극받는 적절한 심리적 긴장 상태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제 3의 심리치료적 접근이라 불리는 의미치료(logotherapy)를 창안한 Frankl은 고통, 죄책감, 및 죽음을 인간 실존의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비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존적 위협에 다가가는 노인들은 점점 늘어가는 빈 시간과, 실존적 공허를 채워나가야 하는 문제에 당면한다. 의미치료에서는 극단적인 괴로움의 시간에도 무조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며,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고자하는 의지(will to meaning)를 통해 자신의 삶 안에서 의미를 찾아, 실존적 좌절을 극복하고자 한다. 인본주의적인 실존적 접근으로도 불리는 의미치료는 이러한 점에서 인지 재구조화를 통한 치료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노화의 위기는 의미의 위기라 할 수 있는데, 다가오는 죽음공포를 극복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자기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을 통해 과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의미치료적 접근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Kimble & Ellor, 2001). 즉,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바라보며, 출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자신을 정리하고, 과거 부정적인 경험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인지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상징적인 삶의 영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심리사회적으로도 자신의 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에 대상영속성의 획득을 통해 외부 대상에 대한 안전감을 형성한 것과 같이,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자기연속성(self-continuity)의 형성을 통해 실존적 공포 앞에서 심리적 안전감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Tillich(2000)가 말했듯이, 존재의 용기를 넘어 존재의 기쁨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현재의 전기노인 세대의 경우, 육체적 노인됨의 수용에 있어 세대 집단 구성원 내 편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의 변화로 인해 당면한 사회적 죽음의 생일을, 전쟁 시기에 형성한 세계관으로 방어하며 사회적 죽음을 동물적 죽음으로 서둘러 경험하게 된 이 세대 구성원들은, 중년기 발달과업 또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과 맞물려 직업 활동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생존을 위한 전투를 치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기노인 세대에는 중년기 당시 닦친 위기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구성원이 있는 반면, 적용에 실패하며 동물적

죽음과 함께 사회적 죽음마저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직업적 적용에 성공한 구성원들은 사회적 죽음뿐 아니라 동물적 죽음 또한 상대적으로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패한 구성원들은 사회적 죽음뿐 아니라 동물적 죽음까지 동시에 직면하게 되면서 보다 빨리 자신의 육체를 노인으로 치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중된 죽음을 겪은 전기노인 세대 내 이 구성원들은 활성화 되어있는 영유아기 세계관의 영향으로 어머니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을 갈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신체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영적인 자기를 통해 의존의 대상을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창조적 불멸의 심상 형성에 실패한 이들은 종교적 불멸에 좀더 강하게 의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기노인 세대 내 이 집단을 대상으로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통해 자기연속성을 형성해나가는 개입이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치료에 대한 연구에는, 가톨릭 신앙 안에서 의미치료를 기반으로 한 영성상담 연구(원동성, 2010) 및 개신교신앙을 기반으로 의미치료적 목회상담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강호, 2002)가 있다. 그 외 의미치료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는,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의미치료에 기반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심정자, 2015)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최명순, 2009) 등이 있다. 자기초월은 또한 Erikson(1963)이 심리사회적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안한 자아통합에 이르는 것을 돕는다. 자아통합에 이르지 못한 노인은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자각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절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자아통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Butler(1963)는 인생회고(life review)를 제안하였다. 인생회고는 우울증 등 노년기 정신질환의 발병을 감소시키는 것에도 관련된다.

천부적인 스토리텔러로서, 인간은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갖는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경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인 내러티브는 자기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Adams, 2001). Butler가 제안한 인생회고는 내러티브의 한 방식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를 통해 향수와 구분되는 노스탤지어(nostalgia) 내러티브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자기 연속성을 형성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성장의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하는 기능을 통해, 특히 죽음을 앞둔 노인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ynnes, 2015). 인지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노스탤지어 내러티브는 의미치료와도 맞닿아 있으며, 자기 연속성의 획득과 자아통합을 통해, 자기 실현적 안녕감(eudaimonic well-being)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Bauer, McAdams, & Pals, 2008).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과 유연한 직업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 늦은 연령까지 직업 활동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과 노인됨의 수용이 좀 더 늦춰질 가능성

이 있다.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는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인해 가족구조와 주거형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면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감소하였고, 또한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한 점도,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죽음을 접할 수 있는 빈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경험의 부족은,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에게 노화 수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및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문화로의 세계관 전환으로 세대 간 접촉이 감소하여, 이전 세대에서 이루어진 것만큼의 생물·사회적 연속의 상징을 안정되게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한 분야에서 평생 일하며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사회경제가 요동치고 점차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살기 위한 일을 해야 했던 구성원들이 다수 존재하여 창조적 불멸의 상징을 형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더하여, 탈종교화 문화가 팽배하였던 시대상황으로 인해, 종교를 기반으로 한 불멸성의 상징 형성이 이전 세대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개인적 및 사회역사적 상황은, 삶의 연속성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중된 어려움과 욕구 해소의 위기에 처해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생물·사회적 방식을 통한 생식성의 지향을 통해, 어린 시절 이전 세대와의 공동주의(joint attention)을 통해 시작한 사회와의 관계를 인류의 연속성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공동책임(joint responsibility)으로 되돌려주며 상징적 불멸의 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실존주의 학자 Heidegger(1927; 이기상 역, 1998)는 죽음을 자각한 현존재(dasein)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시간에 끌려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던지며, 시간을 이끌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1956년 미국심리학회에서 죽음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Feifel(1959)이 『죽음의 의미(The Meaning of Death)』를 출간한 후, 죽음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죽음을 가르치는 죽음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죽음의 의식화를 가져오는 죽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수용으로 다가가고자 하는(Leviton, 1977) 노력이 필요하겠다.

우선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생물·사회적 연속성의 상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소한 개인적 업적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와 직업적 경험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지식과 지혜의 교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죽음의 의식화를 돕고, 창조적 연속성의 심상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생식성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삶의 연속성을 형성해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 생식성으로 나아가는 방식의 세대 간 전이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어머니와 형성하였던 모-아 애착을 넘어, 사회화를 통해 형성한 세계관을 발판으로, 역사적인 흐름 내에서 인류와의 애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공포관리 이론은 죽음 현저성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소비 행태 등 공포관리마케팅과 관련하여 연구

되거나, 죽음 현저성이 증가된 상황에서 내집단 편향성이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 연구되는 등 노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암묵적 죽음 사고접근성과 관련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외현적 죽음 현저성의 증가 및 연령주의와 관련된 연구도 가능한데, 다만, 외현적으로 측정할 경우,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연령주의 수준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향(Levy & Banaji 2002)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전기 및 후기노인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보고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공포관리이론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양한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자기보고보다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암묵적 과정도 함께 밝혀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심리학 분야에서는 친족계보적으로 세대를 구분하여 연구하거나(김혜원, 2013; 옥정, 방희정, 2012; 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 김정란, 이은희, 2007; 김재희, 주은선, 2002; 정태연, 2001; 남순현, 한성열, 2001;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권유경, 1996), 연령대 및 생애주기 발달단계에 기반하여 세대를 구분하여 연구하는(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유경, 2011; 이주일, 유경, 2010; 박정열, 김지혜, 김용희, 김민중, 최은수, 허태균, 2007; 정명숙, 김혜리, 2005; 나은영, 2002; 최인수, 원윤선, 2000; 박영숙, 2000)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Peck(1968)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속하는 중·노년기 발달 연구에서 생활연령보다는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구분은 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세대를 사회역사적 세대로 정의하고, 연령의 영향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역사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이 살아온 삶의 개인적 및 시대적 역사가 내면에 겹겹이 쌓여있어, 심리학적 연구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양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생활연령을 넘어서 연구대상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남성에게서도 여성의 동물적 죽음의 생일에 버금가는 사회적 표식으로서, 사회적 죽음의 생일이 강렬하게 직면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베이비부머 세대 및 전기노인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영향에 인한 것인지, 또는 직업적 사회활동의 의미가 큰 남성이 갖는 특징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비슷한 연령 집단과의 비교, 또는 중단 연구를 통한 노화 인식과 죽음 수용의 변화과정의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Baltes가 제안한 개체 발생적 연령관련 요인과 진화적 역사관련 요인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단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죽음의 생일’에서 연령관련 요인과 역사관련 요인의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징적 불멸의 형성 및 의미치료와 노스텔지어 스토리텔링을 등을 통한 인지적 재구조화 과정 및 죽음공포와 연령주의 세계관의 형성은, 대뇌 신경세포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장기강화(Long-Term Potentiation; LTP)와,

이 때 형성되는 응고화 및 재응고화 과정과 관련된다. 공포의 고전적 조건형성의 뇌 기전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 인지신경과학적 공포 기억 및 학습의 연구 결과, 사회적 공포의 학습에도 비슷한 두뇌영역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편도체는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공포반응과 관련되고, 편도체-해마 경로를 통해 LTP 시 정서적인 공포 반응의 기억이 형성되어 의식적 기억으로 응고화된다. 더불어 편도체-복내측 전전두피질 경로에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편도체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상위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데, 학습된 공포반응의 소거 시, 이 경로에서 재응고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lgado, Olsson, & Phelps, 2006; Olsson & Phelps, 2007).

연령주의와 같은 사회적 편견의 형성은 위의 두 경로에서 지속적인 동일한 시냅스 집단의 활성화를 통한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Knutson, Mah, Manly, & Grafman, 2007). 더불어 기억 및 학습과 관련된 시냅스 집단이 LTP로 활성화 된 상태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로 재응고화 되었을 때, 성공적인 인지 재구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외 전측대상피질 및 전측 뇌 섬이 타인의 통증 및 고통에 대한 공감적 정보를 처리하며 사회적 공포 학습 시 함께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lsson & Phelps, 2007).

위에서 언급된 두뇌 영역들은 또한, 멘탈라이징(mentalizing)과 관련된 영역으로도 알려져 있다(Frith & Frith, 2006). 정신화 또는 심리화의 과정으로 변안되는 멘탈라이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마음에 대한 감각으로(Fonagy, Gergely, & Jurist, 2004), 마인드사이트(mindsight)라고도 불린다(Siegel, 2010).

아직 뇌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그 중 자기에 대한 정서적 멘탈라이징에 해당하는 마음챙김관련 활동시, 두뇌의 전측 영역 뿐 아니라 후측까지 넓은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고(Hölzel, Lazar, Gard, Schuman-Olivier, Vago, & Ott, 2011), 자기초월과 관련된 영성 명상 시에는 후측상두정소엽으로의 구심로차단(deafferenta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Newberg, d'Aquili, 1998; d'Aquili, Newberg, 2000). 두뇌의 전측과 후측을 연결하는 신경 회로에 대한 구심로차단은 신체적 자기의 시공간적 개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두정엽과의 신경정보전달을 차단하여 초월적 경험을 촉진해주는 것으로 시사된다(Urgesi, Aglioti, Skrap, & Fabbro,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초월로 다가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마음챙김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자기초월경험을 돕는 종교적 죽음수용 명상 프로그램에는, 불교를 기반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Hanh, 2012; 진우기 역, 2013) 및 죽음교육(정재걸, 2006)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이은성, 2014)도 소개되었다. 그 외에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문형공, 2016), 수용전념치료(Speedlin, Milligan, Haberstroh, & Duffey, 2016) 등이 제안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어린 시절 전쟁의 상흔이 애착과 사회화 과정에서 낙인처럼 남아, 노인이 되었을 때 다시 재활성화되어 영향을 주게 되는 생애 순환의 고리를 시사하였다. Becker(1973; 김재영 역, 2008)는 아동의 애착 안전기지가 부모에서 문화로 옮겨가는 것을 일차적 전이 과정이라 하였다. 이 과정은 부모가 완벽하지 않고, 틀릴 수 있으

며, 죽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서 시작되고, 그 결과 아동은 자신의 안전기지를 문화의 규범, 가치 및 지시로 확장시킨다. 즉,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은 안정된 불안 완충기제의 형성에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도 애착 유형에 따른 죽음현저성 효과의 차이가 보고되었다(Cox, Arndt, Pyszczynski, Greenberg, Abdollahi, & Solomon, 2008; Mikulincer & Florian, 2000). 또한 Florian, Mikulincer와 Hirschberger(2002)의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불안 완충기제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Fraley와 Bonanno(2004)은 회피애착의 하위 유형에 따라 상실에 대한 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휘숙(2000b)이 진행한 연구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 죽음불안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과 죽음공포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순환하는 애착의 연결고리를 탐색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기동, 조영태, 조성일, 성주현, 조비룡, 손기영, 최호천 (2012). 우리나라 노인에서 건강 위험 행동과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 고령화 연구 패널(KLoSA). *대한노인병학회지*, 16(2), 66-73.
- 고선규, 권정혜 (2007). 지역 사회 노인을 위한 다요인 기억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545-572.
- 고선규, 안상미, 박민규, 최성호, 김연수, 우은

- 경, 김현정, 조인호 (2003). 한국 노인의 우울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1), 131-132.
- 고효정, 송원영 (2014). 중년기 여성의 영성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호함에 대한 감내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49-249.
- 권유경 (1996). 삼세대간 지혜와 지능의 발달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1-19.
- 김고은 (2010).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문영, 정현희 (2003).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고독감, 역기능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77-490.
- 김미혜, 정순돌, 박현주 (2014).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 미국, 영국 고령화패널 비교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6(2), 987-1005.
- 김수진, 이주일 (2016). 주도성 및 개방성과 시간조망 및 프로틴 경력지향이 미래경력설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2), 303-326.
- 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노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573-596.
- 김영경, 김혜리 (2015). 노년기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87-108.
- 김옥 (2003). 노인차별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원경 (2001).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 증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49-66.
- 김일호, 천희란 (2015). 노인차별과 그 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 한국노년학, 35(2), 433-450.
- 김재희, 주은선 (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1-18.
-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361-391.
- 김주현, 한경혜 (2012).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잠재유형. 한국인구학, 35(3), 57-85.
- 김주현 (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53-75.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김지현, 민경환 (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27.
- 김진영 (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 89-113.
-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김현순, 김병석 (2007).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801-818.
- 김혜령 (2015). 일 도시지역 60세 이상 남성의 우울과 영향요인. 한국위기관리논집, 11

- (7), 181-196.
- 김혜원 (2013). 모녀간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와 여대생의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3-43.
- 김호영, 최진영, 석정서 (2010).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K-DRS)를 이용한 노인인지기능 평가에서 변화유익성 탐지 - 50세 이상 상노년 검사재검사 기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505-523.
- 나은영 (2002). 탈물질주의 가치와 이동전화 이용 행동 및 태도에서의 세대차.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3(1), 17-32.
- 남순현, 한성열 (2001). 3 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25-640.
- 문현공 (2016). 죽음 현저성 (Mortality Salience)의 교육적 함의-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死念) 과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연구*, 51, 153-176.
-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성 · 세대 ·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 반응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19-140.
- 박미진 (2007).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97-211.
- 박선영, 권석만 (2014).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549-571.
-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77-103.
- 박영숙 (2000). 정신장애자가족의 가족관계 및 특징에서 세대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13-725.
- 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33-559.
- 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의 자녀관련 인식 비교: 이상적 자녀수,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긍정적 자녀가치와 부정적 자녀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127-152.
- 박인조, 이주일 (2014). 무엇이 장노년의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받는가?: 시간적 관점에서 조명.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1), 83-105.
- 박정열, 김지혜, 김용희, 김민중, 최은수, 허태균 (2007). 인상형성의 능동적 정보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23-143.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1-23.
- 박태정 (201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29-57.
- 박혜옥, 육성필 (2013). 부부친밀감에 따른 배우자 사별노인의 사별스트레스가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상재-매개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33-951.
- 박현식 (2008)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7-26.
- 방석찬 (2002). 이완 훈련이 한국인 노년 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257-272.
- 배지연, 김원형 (2005).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

- 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446-447.
- 백지은 (2010).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25-445.
- 백지은 (2012). 전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노인들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175-199.
- 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 서경현, 김영숙 (2003).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115-137.
- 서경현, 김태민, 손 술, 김혜경 (2013). 노년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하향 사회비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2), 379-402.
- 신창환 (2010).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30(2), 453-469.
- 신희석 (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5.
- 심정자 (2015).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의미치료 프로그램 개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안상수, 탁진국, 유태용, 한태영, 한영석 (2006). 중장년층 실직 여성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208-209.
-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오현성, 한은영 (2007). 종합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7-172.
- 옥 정, 방희정 (2012).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45-65.
- 원동성 (2010). 의미치료 관점에서 바라본 그리스도교 영성상담에 대한 고찰. 대전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4), 319-339.
- 유 경, 강연옥 (2009). 노년기 정서 경험과 대처 양식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893-910.
- 유성은, 권정혜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67-84.
- 유정현, 성혜영 (2009).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9(2), 717-728.
- 윤성민, 신희천 (2012).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 심리활동들의 효과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21-148.
- 윤현숙, 구분미 (2009).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2), 303-324.
- 이강호 (2002). 의미치료적 목회상담이 노인의 심리적 문제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민수, 남종원, 차지현, 곽동일 (1999). 노인 우울증의 심각도 미치는 요인. 신경정신의학, 38(5), 1063-1070.
- 이비에스(EBS) 테스제작팀 (2014). 죽음. 서울: 책담.

- 이수애, 이경미 (2002). 농촌지역 노인의 우울 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韓國老年學*, 22(1), 209-226.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은성 (2014). 고령화시대 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0, 387-419.
- 이인영, 정영숙 (2016).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4), 123-144.
- 이주일, 강연옥, 김지현, 유 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
- 이주일, 유 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3), 471-501.
- 이혜림, 명재석, 오설아, 최승원 (2016). 사회연결망이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925-942.
- 임정연, 김호정, 염유식 (2016). 관계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갈등이 노인의 우울과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3), 645-657.
- 장휘숙 (2000a). *인간발달*.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00b).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27-143.
- 장휘숙 (2010). 주관적 연령이 노인의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죽음공포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5.
- 전상남, 신학진 (2011). 노인차별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고독의 매개효과. *韓國老年學*, 31(4), 925-938.
- 정명숙, 김혜리 (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 정순돌 (2005).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韓國老年學*, 25(3), 75-90.
- 정순돌, 구미정 (2011). 우울 영향요인: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2, 305-324.
- 정순돌, 전혜상, 송아영 (2015).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주민참여환경, 주거환경, 복지 및 의료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3), 29-46.
- 정순돌, 김민경, 김은주, 김주현 (2016). 심리사회적 노화와 연령통합 인식: 가족주의 및 가족결속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4, 187-223.
- 정순돌, 임정숙, 정세미, 이미우 (2016).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47(1), 123-149.
- 정재걸 (2006). 죽음교육에 대한 일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3, 205-230.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1-18.
- 조명현, 장재윤, 유 경, 이주일 (2015). 재난 간접 경험 후 노인들의 정서 변화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 671-696.
- 조아라, 정영숙 (2012). 노인의 감사와 성숙한 노화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67-87.
- 진철숙 (2015).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기관 상담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0), 193-204
- 최승은, 한경혜 (2006). 남녀의 가족 역할 점수와 건강 문제. *한국인구학*, 29(2), 167-194.
- 천희란, 김일호 (2013). 노인차별(ageism)의 사회적 경제적 관련요인과 건강영향. *韓國老年學*, 33(3), 601-615.
- 최명순 (2009).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과 의미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성재 (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韓國老年學*, 29(1), 329-352.
- 최성재, 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인수, 원윤선 (2000). 한국 중·고·대학생들의 이성친구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31-143.
- 최진영, 이지은, 김명진, 김호영 (2006). 노인용 언어 학습 검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141-173.
- 통계청 (2010a).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10년 5월 7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10b). 인구총조사.
- 홍주연, 윤 미 (2013). 중년여성의 영성이 행복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219-242.
- Andersen, E. M., Malmgren, J. A., Carter, W. B., & Patrick, D. L. (1994). Screening for depression in well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2), 77-84.
- Baltes, P. B., Reese, H. W., & Lipsitt, L. P. (1980).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1), 65-110.
- Baltes, P. B. (1987). Theoretical Propositions of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On the Dynamics between Growth and Decline. *Developmental Psychology*, 23(5), 611.
- Barker, M., O'Hanlon, A., McGee, H. M., Hickey, A., & Conroy, R. M. (2007). Cross-sectional validation of the 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for assessing self-perceptions of aging. *BMC geriatrics*, 7(1), 9.
- Bauer, J. J., McAdams, D. P., & Pals, J. L. (2008). Narrative identity and eudaimonic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81-104.
- Becker, E. (1971). *The Birth and Death of Mean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on the Problem of Man*. 2d Ed. New York: Free Press.
- Bec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Simon & Schuster.
- Becker, E. (1975). *Escape from evil*. New York, NY, US: Free Press.
- Becker, E. (2008). 죽음의 부정: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를 넘어서. [The Denial of Death] (김재영 역).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원전은 1973년에 출판).
- Breckler, S. J.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47(6), 1191.
- Bultena, G. L., & Powers, E. A. (1978). Denial of aging: Age identification and reference group orient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33(5), 748-754.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1), 65-76.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Gerontologist*, 9, 243-246.
- Butler, R. N.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2), 8-11.
- Butler, R. N. (1987). Ageism.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Butler, R. N. (1995). Ageism. In G.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Cherry, K. E., & Palmore, E.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ROPE): A measure of self-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10), 849-861.
- Cox, C. R., Arndt, J., Pyszczynski, T., Greenberg, J., Abdollahi, A., & Solomon, S. (2008). Terror management and adult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the safe haven re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4), 696.
- Cuddy, A. J., & Fiske, S. T. (2002). Doddering but dear: Process, content, and function in stereotyping of older persons.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3-26.
- d'Aquili, E. G., & Newberg, A. B. (2000). The neuropsychology of aesthetic, spiritual, and mystical states. *Zygon*, 35(1), 39-51.
- Delgado, M. R., Olsson, A., & Phelps, E. A. (2006). Extending animal models of fear conditioning to humans. *Biological psychology*, 73(1), 39-48.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New York: WW.
- Feifel, H. E. (1959). *The meaning of death*.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Frith, C. D., & Frith, U. (2006). The neural basis of mentalizing. *Neuron*, 50(4), 531-534.
- Fishbain, D. A., Cutler, R., Rosomoff, H. L., & Rosomoff, R. S. (1997). Chronic pain-associated depression: antecedent or consequence of chronic pain? A review. *The Clinical journal of pain*, 13(2), 116-137.
- Florian, V., Mikulincer, M., & Hirschberger, G. (2002). The anxiety-buffering function of close relationships: evidence that relationship commitment acts as a terror management mechan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27.
- Fonagy, P., Gergely, G., & Jurist, E. L. (Eds.). (2004).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UK: Karnac books.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 9(1), 56-66.
- Fraley, R. C., & Bonanno, G. A. (2004). Attachment and loss: A test of three competing models on the association between attachment-related avoidance and adaptation to berea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7), 878-890.
- Frankl, V. E. (1959). The spiritual dimension in existential analysis and logotherapy. *Journal of*

- Individual Psychology*, 15(2), 157.
- Frankl, V. E. (1962). Psychiatry and man's quest for mean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2), 93-103.
- Gaylin, W. (1968). *The meaning of despair*. New York: Science House.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189, 189-212.
- Greenberg, J., Schimel, J., & Martens, A. (2002).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27-48.
- Hanh, T. N. (2013). 오늘도 두려움 없이. [*Fear: Essential wisdom for getting through the storm*] (진우기 역). 김영사. (원전은 2012년에 출판).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eidegger, M. (1998).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 (이기상 역). 서울: 까치글방. (원전은 1927년에 출판).
- Hölzel, B. K., Lazar, S. W., Gard, T., Schuman-Olivier, Z., Vago, D. R., & Ott, U. (2011). How does mindfulness meditation work? Proposing mechanisms of action from a conceptual and neural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6(6), 537-559.
- Jang, Y., Poon, L. W., Kim, S. Y., & Shin, B. K. (2004). Self-perception of aging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Korea. *Journal of Aging Studies*, 18(4), 485-496.
- Jung, C. G. (1968). *Man and his symbols*. 1964. New York: Laurel-Dell.
- Kaufman, G., & Elder, G. H. (2002). Revisiting age identity: A research note. *Journal of Aging Studies*, 16(2), 169-176.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125-149.
- Kimble, M. A., & Ellor, J. W. (2001). Logotherapy: An overview. *Journal of religious gerontology*, 11(3-4), 9-24.
- Kleinspehn-Ammerlahn, A., Kotter-Grühn, D., & Smith, J. (2008). Self-perceptions of aging: Do subjective age and satisfaction with aging change during old ag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6), 377-385.
- Knutson, K. M., Mah, L., Manly, C. F., & Grafman, J. (2007). Neural correlates of automatic beliefs about gender and race. *Human brain mapping*, 28(10), 915-930.
- Levinson, D. (2003).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The Seasons of Man's Life*] (김애순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전은 1978년에 출판).
- Leviton, D. (1977). Death education. *New meanings of death*, 254-272.
- Levy, B. R., & Banaji, M. R. (2002). Implicit ageism.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49-75.
- Levy, B. R. (2003). Mind matters: Cognitive and physical effects of aging self-stereotyp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4), 203-211.

- Levy, B. (2009). Stereotype embodiment: A psychosocial approach to ag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6), 332-336.
- Lifton, R. J., & Olson, E. (1981). 죽음의 윤리. [Living and dying] (이일철 역). 서울: 文志社. (원전은 1974년에 출판).
- Lifton, R. J. (1983). *The broken connection: On death and the continuity of life*.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Pub.
- Lifton, R. J., & Olson, E. (2017). Symbolic Immortality. In *Death, mourning, and burial: a cross-cultural reader*. NJ: John Wiley & Sons.
- Maier, H., & Smith, J. (1999). Psychological predictors of mortality in old ag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1), 44-54.
- Martens, A., Goldenberg, J. L., & Greenberg, J. (2005).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23-239.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
- McCoy, S. K., Pyszczynski, T., Solomon, S., & Greenberg, J. (2000). Transcending the self: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successful aging. In A. Tomer (Ed.), *Series in death, dying, and bereavement.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37-63). New York: Brunner-Routledge.
- Mikulincer, M., & Florian, V. (2000). Explo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ons to mortality salience: Does attachment style regulate terror management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60.
- Musaiger, A. O., & D'Souza, R. (2009). Role of age and gender in the perception of aging: A community-based survey in Kuwait.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8(1), 50-57.
- Newberg, A. B., & d'Aquili, E. G. (1998). *The neuropsychology of spiritual experience*. In *Handbook of religion and mental health* (pp. 75-94). Academic Press.
- Olsson, A., & Phelps, E. A. (2007). Social learning of fear. *Nature neuroscience*, 10(9), 1095-1102.
- Palmore,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Peck, R. (1968).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yszczynski, T., Greenberg, J., & Solomon, S. (1999). A dual-process model of defense against conscious and unconscious death-related thoughts: an extension of terror management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06(4), 835-84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gers, D. (1986). *The adult years: An introduction to aging*. NJ: Prentice Hall.
- Schmeichel, B. J., Gailliot, M. T., Filardo, E. A., McGregor, I., Gitter, S., & Baumeister, R. F. (2009).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self-esteem revisited: the roles of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mortality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77-1087.
- Siegel, D. J. (2010). *Mindsight: The new science of personal transformation*. New York: Bantam.
- Smith, G. C., Tobin, S. S., & Fullmer, E. M.

- (1995). Elderly mothers caring at home for offspring with mental retardation: A model of permanency planning.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9(5), 487-499.
- Speedlin, S., Milligan, K., Haberstroh, S., & Duffey, T. (2016).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o Negotiate Losses and Life Transitions. *Ideas and Research You Can Use: VISTAS 2016*, Article 12.
- Synnes, O. (2015). Narratives of nostalgia in the face of death: the importance of lighter stories of the past in palliative care. *Journal of aging studies*, 34, 169-176.
- Tillich, P. (2000). *The courage to b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ornstam, L. (1989). Gero-transcendence: A reformulation of the disengagement theory. *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1), 55-63.
- Urgesi, C., Aglioti, S. M., Skrap, M., & Fabbro, F. (2010). The spiritual brain: selective cortical lesions modulate human self-transcendence. *Neuron*, 65(3), 309-319.

1차원고접수 : 2017. 07. 14.

수정원고접수 : 2018. 01. 08.

최종게재결정 : 2018. 02. 12.

The Relationship Among Ageism, Self-Perception of Physiological & Psycho-social Aging, and Depressive Mood: Comparison between Male Babyboomer, Young-Old & Old-Old Generation Groups

Hwang, Minyoung J.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im, Ju Hyun

Chungnam National Univ.
Department of Soci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ageism and depressive mood with examining serial multiple moderating effect of self-perception of physiological and psychosocial aging in three generation groups. Data of the male babyboomer group($N=69$), the male young-old group($N=151$) and the male old-old group($N=63$) were analysed. They were asked to fill out a set of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Ageism Survey, short form of CES-D, 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and Self-Perceived Adverse Age-Change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on perception of physiological aging, psychosocial aging and depressive mood. (2) Expect for relationships between generation groups & ageism, and ageism & perception of physiological aging,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3) In the male babyboomer generation, indirect effect of 'physiological aging \rightarrow psycho-social aging \rightarrow depressive mood' and direct effect of 'physiological aging \rightarrow depressive mood' were significant. In the male young-old and the old-old generations, indirect effect of 'ageism \rightarrow psycho-social aging \rightarrow depressive mood' were significant. Also, physiological aging showed tendencies with different patterns in these two generation group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socio-historical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face of existential threat.

Key words : *Terror Management Theory, Ageism, Aging, Depressive Mood, Socio-historical generation*